



# 새싹편지 11

## 유아교육학과 1학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및 실외 환경 조사에 나섰다.



유아교육학과 1학년 학생들은 10월 19일 우송유치원과 11월 5일 자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1월 12일 각 반마다 법원어린이집과 KB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내 및 실외 환경과 교재교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장 관찰의 목적은 실내 및 실외 흥미 영역 관찰과 교재교구, 시설설비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는 놀이 교과와 수업에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학습이며 예비 유치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함으로써 유아반과 영아반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다.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관 소개 및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제와 그에 맞는 교재교구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유아교육기관마다 주제에 따른 교재교구가 달랐으며 그도 연령에 따라 다양하였다.

우송유치원만이 아닌 다른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유아교육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등 응용할 수 있었으며 현장 학습을 통해 수업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예비 유치원 교사로서 영유아 발달에 따른 환경 구성과 교재교구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대학생들의 건강한 경쟁, ACE 포럼을 경험하다.

우송대학교는 지난 11월 9일 오후 1시 30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에서 ‘학부교육 선진화 모델 구축 및 확산’이라는 주제로 제4차 ACE 국내 포럼을 개최했다.

ACE 사업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행사는 25개 대학이 선진교육모델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이날 25개 ACE 회원대학 및 97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다가오는 발표순서에 긴장을 한 각 학교의 대표학생들과 심사를 맡아주신 교수님들의

업속함과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자기 성장, 사회봉사, ACE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등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마지막 시상식에서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국제간호사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상을 차지하였다.

이런 전국적인 행사는 우리에게 새로움과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큰 행사에 처음 참가해 본 우리가 모두 우물 안 개구리처럼 느껴졌다. 또 ACE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을 보며 부러움도 생겼다. 경주마처럼 달리기보다는 가끔 안대를 열고 양옆에 무엇이 있는지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친구들의 캠퍼스 생활 함께 나누기

# 아너스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가다!



1-A 김유현

지난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송대학교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아너스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개최되었다. 3~4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총 35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내가 속해있던 조인 ‘Adultkids’ 팀은 같은 반인 강소영, 김하늘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자율전공학과 학생으로 이렇게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팀을 포함하여 이번 대회에 출전한 팀들은 2학기가 개강한 후, 일주일에 2번 있는 영어 회화 수업을 활용하여 두 달 동안 준비를 하였다. 각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PPT와 대본을 직접 만들어 가며 대회를 준비했다.

우리 조는 어른 상품을 본뜬 유아용 상품이 현대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어덜키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Adult-kids’를 주제로 선정하여 대회를 준비해 나갔다. 대회에서는 한 팀당 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으며 심사위원인 외국인 교수님들과의 Q&A 시간도 주어졌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시상식을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4등 발표 시간에



‘Adultkids’를 호명하셨고 우리 팀은 놀라워하며 상을 받으러 올라갔다. 담당 외국인 교수님께 부탁을 해 발음 교정도 받고 자연스러운 발표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노력했던 일들이 떠올라 더 기뻐다. 영어로 발표하는 PPT 대회가 처음이어서 더 긴장도 되고 대본을 더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표에서 쓰이는 문법이나 일상 영어 회화와 같은 영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유아교육과의 행복해지기!

“행복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연습하고 훈련하라.”



2-B 이다영

‘행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에 나온 내용이다. 행복은 사람의 생각과 습관에 달려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지 못하고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마다 긍정적인 생활을 하자며 나에게 스스로 다짐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려고 다양한 것에 참여했다. 또한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기쁜 감정을 느끼려 노력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내가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들,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그것은 진짜로 내가 느끼는 것이 되었다. 뇌는 상상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상상하는 것을 뇌는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연습하고 훈련하라. 그러면 그토록 원하던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을 살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다.

1. 감사하기 : 긍정의 연습!
  - ① 매일 저녁, 그 날 일어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일기에 쓴다.
  - ② 신문에서 감사할 만한 뉴스를 찾아 스크랩한다.
  - ③ 평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감사편지를 전한다.
  - ④ 하루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크게 소리 내어 웃는다.
2. 어울리기 : 관계의 확대!
  - ⑤ 대화하지 않던 이웃에게 말을 건다.
  - ⑥ 좋은 친구나 배우자, 부모와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방해받지 않고 대화한다.
  - ⑦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난다.
3. 친절하기(나에게 & 이웃에게) : 나눔의 행복!
  - ⑧ 나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선물을 준다.
  - ⑨ 남에게 하루 한번 친절한 행동을 한다.
  - ⑩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다.

2-A 김미진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일기에 쓰는 것은 행복 다큐 속에서 인상 깊었던 방법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으나 평소에 쓰지 않던 일기를 갑자기 쓰기란 쉽진 않았다.

칸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적어나갔다.

처음에 행복지수를 측정할 때, 즐겁진 않아도 삶에 만족하다는 자신감에 높은 숫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높은 행복지수를 얻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방법을 실천한 후의 나의 행복지수는 처음과는 다른 의미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행복 방법을 실천해 나가는 지금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앞으로도 행복 방법을 한 가지씩 늘려 실천해 나갈 것이며 물질적으로가 아닌 심적으로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난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다.”



1-A 김유리

“평소에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해서 걱정이 되던 차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보았는데 그 방법은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씩 작성해 보기였습니다. 큰일 들을 적고 싶었지만 평범하게 지내 와서 감사한 일을 적으려니 사소한 점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몸이 피곤하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고, 버스 파업을 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감사함을 느꼈던 것처럼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성희 교수님

“일하는 바쁜 엄마를 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떡을 만들고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해 돌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한 개의 조명만을 남겨놓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홉 살 난 딸아이에게 "가장 행복할 때는?" 하고 물으니 "지금!"이라고 하더군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지금 이순간의 행복함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 시간을 지배하는 자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힘들다. 과제를 할 때나 시험공부를 할 때 한 양에 비해 시간이 빨리 지나가 속상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시험공부와 과제 등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책상 정리를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래도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엄마한테 말도 걸어보고 친구와 전화도 하고 물도 마신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이전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CE 노트를 잘 활용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얼마나 소요했는지 표시해보면서 그날 계획한 것은 끝낼 수 있도록 해보면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짧은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정작 중요한 수업시간에는 졸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10분이라는 시간은 1초에 약 10m를 달려가는 우사인

볼트에게는 100m를 60번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피곤하다면 낮잠을 자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하고, 급한 일이 있다면 화장실을 다녀오면 된다.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제를 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책도 찾아 두었지만 정리가 안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미쳐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늘 시간에 쫓겨 내는 데 의의를 두게 된다. 이럴 때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천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영상을 보고 감상문을 쓰는 과제를 할 때 어떤 동영상을 볼지 고민하다 제대로 감상하지도 못하고 글짓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 잘하려고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그때 그때 버릴 필요가 있다. 시간은 날아가는 새와 같다.



## 신입원아들의 우송유치원 나들이



2012년 11월 24일 14시에 우송유치원에 입학할 신입원아들의 유치원 나들이가 있었다. 유아들이 유치원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것을 돕고, 우송 유치원에 더욱 기대할 수 있도록 나들이를 열었다.

이날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 영역을 둘러보며 놀이를 하였고, 작은방에서 부모님과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에는 유치원 생활과 관련된 동화 <화장실에 가요>를 듣고 놀이 중에 언제든지 화장실을 가도록 이야기하고, 화장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세이지만 김보람 교사의 동화를 집중하여 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 만드는 사람들

지도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3학년 김진희  
 2학년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1학년 김유현 김지윤 박지원